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81-227
<https://doi.org/10.29212/mh.2021..118.1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연구*

-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의 <해구(海寇)에서 해상(海商),
=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을 중심으로 -

한윤희**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조선 초 일본의 사절 파견과 왜구의 침구
4. 15세기 왜구의 활동 양태
5. 결론

1. 서론

2018년 7월 27일,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전쟁 포로 및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송환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핵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인해 2017년 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¹⁾

이처럼 전쟁 포로 송환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고려 말 일본의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피로인(被虜人) 송환²⁾ 역시 14세기 말 왜구 침구로 인해 한·중·일 삼국 간에 빚어진 군사·정치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고려·일본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런데 중세시기 동아시아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피로인 송환에 관해 기존 연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栄孝)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해구(海寇)는 해상(海商)으로 전환되었다”⁴⁾고 보고 있다. 이 언급을 통해 나카무라는

1) 구분학,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신아세아』 25-2, 2018; 윤동영·강건택, 「북한, 한국전 미군 유해 250여구 송환」, 『마이더스(Midas)』 2018-7, 2018.

2) 14세기~15세기의 피로인 및 피로인 송환에 관한 연구는 왜구 연구와 함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関周一, 『第一章 被虜人の境遇と送還』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을 참조. 국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로는 손흥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충』 19, 1975;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日本研究』 36,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の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6, 2016 등이 있다.

3) 한윤희, 위의 글.

4) 여기에서 해구(海寇)란 곧 왜구(倭寇)를 가리키며 해상(海商)은 상인(商人)을 가리키는데, 나카무라는 해상을 평화로운 통호자(通好者)로 보고 있다(中村栄孝, 『室町時

‘피로인 송환자=왜구, 왜구≠해상’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찰할 수 있다. 과연 피로인 송환자는 왜구이며,⁵⁾ 왜구와 해상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⁶⁾

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해구(=왜구)는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진 이후 왜구의 침구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고려 말에 이어 조선조에 와서도 왜구 침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왜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 침구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만든 그가 과연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르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일까?

한편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황국사관에 입각하여 왜구를 비롯한 전근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왔음을 지적한

代の日鮮關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 5)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피로인 송환자에 대해 왜구이거나 왜구가 아닌 경우, 왜구일 수도 있는 경우 등 그 실체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한윤희, 『여말·선조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6) 나카무라 히데다카·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모두 ‘왜구의 종식=무역상인의 활동’이라고 여길 정도로 왜구와 해상(=상인)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中村榮孝, 위의 글, 『室町時代の日鮮關係』, 4쪽;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478쪽;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36쪽), 세키 슈이치(関周一) 역시 대마도민(對馬島民)의 송환 예를 거론하며 “그들은 원래 왜구였던 자와 상인(해상)들(즉 해민)이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関周一, 위의 책, 33쪽)라고 하며 앞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왜구와 해상을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출판된 책에서는 왜구를 설명하며 ‘왜구는 조선반도와 중국대륙에서 쌀이나 사람 등을 약탈하는 해적을 가리키는 말인데, 약탈한 사람이나 물건은 상품으로서 교역하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関周一, 『対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4쪽)고 하고 있다. 즉, 왜구가 상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2002년의 견해와는 달리 왜구와 상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들이 발표되었다.⁷⁾ 나카무라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실시한 사업 중 하나인 조선의 고적 조사 및 보존사업과 『조선사(朝鮮史)』 편수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⁸⁾ 그는 20년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자료로 조선에 관한 역사에 대해 섭렵하였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 관여한 것이다.⁹⁾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는 전근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으며, 그의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日鮮關係史の研究』(上·中·下, 吉川弘文館, 1965~1969)¹⁰⁾는

-
- 7) 이 영,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연구소』 제28집, 동국대학교 문화기술원, 2014(이하 「조선사 편수관」으로 약칭); 이 영,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연구』 127집, 2014; 이 영,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이하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으로 약칭); 이 영,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 - 『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6집, 2015(이하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으로 약칭). 이 논문들은 후에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에 실림.
- 8) 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
- 9)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조선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을 참조.
- 10) 『日鮮關係史の研究』(上·中·下)는 나카무라가 패전 후 조선에서 돌아와 1965년부터 1969년에 걸쳐 간행한 연구서로, 이 세 권의 연구서로 그는 1970년 일본의 학술상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일본학사원상(日本學士院賞)을 수상하고, 또한 그 중에서 특히 뛰어난 각 부(部) 1건 내지 2건에 준하는 은사상(恩賜賞, 황실의 하사금으로 수여)을 동시에 수상하였다(일본 위키피디아 참조 [https://ja.wikipedia.org/wiki/%E6%81%A9%E8%B3%9C%E8%B3%9E_\(%E6%97%A5%E6%9C%AC%E5%AD%A6%E5%A3%AB%E9%99%A2](https://ja.wikipedia.org/wiki/%E6%81%A9%E8%B3%9C%E8%B3%9E_(%E6%97%A5%E6%9C%AC%E5%AD%A6%E5%A3%AB%E9%99%A2), 2020년 10월 31일 오전 10시 50분 검색). 본 상의 심사평가 요지에 따르면 “특히, 상대측인 조선의 방대한 사료를 구사하여 수백 년에 걸친 조선의 국정 변동과 이와 관련하여 요동하는 대일 교린 무역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추구, 논술함으로써, 일본의 대외관계사에 새로운 면을 연 것이고, 일선관계사 연구는 여기에 중요한 문헌을 더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의 추진에 강고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할 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에게 명저(名著)로 평가받고 있다.¹¹⁾

이 영의 연구에 따르면, 나카무라의 연구는 황국사관에 입각해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그의 입장을 반영한 목적 지향성에 근거한 것으로, 치밀하고 교묘한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것이었다고 한다.¹²⁾ 이처럼 황국사관으로 왜곡된 나카무라의 연구는 패전 이후를 지나 현재까지도 전근대 한일 관계사, 특히 왜구 연구사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다.¹³⁾

그렇다면 피로인 송환 연구와 관련한 그의 주장, 즉 ‘피로인 송환을 통해 해구가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황국사관이라는 사상 아래에서 형성된 논리는 아닌지, 현시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말 피로인 송환은 14세기 말 왜구 침구로 인한 동아시아 삼국의 군사·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 이는 곧 고려와 일본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구축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¹⁴⁾ 그렇다면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있다.”며 심사위원이 극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中村榮孝君の『日鮮關係史の研究』上、中、下三卷に対する。授賞審査要旨」. 일본 야후재팬에서 검색). ※ 본 주석의 내용은 이 영, 위의 주(7)의 글,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의 내용을 참조로 검색하여 쓴 것임을 밝혀둔다.

11) 『日鮮關係史の研究』에 앞서, 다나카 다케오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조관계사(日朝關係史)의 개설(概說)이라고 칭하며 오늘날의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田中健夫, 『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3, 135쪽), 『岩波講座 日本歴史』에 실린 논문 중 하나인 『室町時代の日鮮關係』는 나카무라 히데다가 구축한 왜구 패러다임의 기본이 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이 후에 『日鮮關係史の研究』(上)에 실린 것으로, 1934년에 논문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약 86년간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여전히 기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12) 이 영, 위의 주(7)의 글, 「조선사 편수관」.

13) 나카무라의 왜구 관련 제 학설이 전후 일본 왜구 연구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현재도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이 영, 위의 글 참조).

14) 한윤희, 앞의 논문.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피로인을 송환하는 자에게 있어 피로인 송환은 ‘조선과 통교(즉 무역)하는 계기’가 되었으며,¹⁵⁾ 이를 계기로 양자의 무역을 촉진¹⁶⁾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⁷⁾ 그런데 이는 나카무라의 주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고려·조선에 피로인을 송환하여 고려·조선 정부의 환심을 사 무역을 하게 되었고, 점차 이를 모방하는 자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조선조에 들어와 피로인 송환자인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¹⁸⁾ 과연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 피로인 송환은 해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킨 역할을 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지는 조선 태조~세종대까지의 피로인 송환과 왜구 침구의 양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 태조~세종대까지 약 58년간이라는 넓은 범위의 시기를 본고

15) 関周一, 앞의 책.

16) 秋山謙藏, 「『倭寇』による朝鮮·支那人奴隸の掠奪とその送還及び賣買」, 『社会経済史学』 2권 8호, 1932, 8의 38(826);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370쪽.

17) 다나카 다케오도 세키 및 아키야마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田中健夫, 주(6)의 책, 21쪽). 피로인 송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처럼 피로인 송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조선정부-일본 제호족간의 무역을 전개하고 촉진하는 수단’으로 서만,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8) 中村栄孝, 위의 글, 「室町時代の日鮮關係」, 9쪽·12~13쪽. 나카무라의 왜구 패러다임은 왜구 문제를 일본 국내의 군사 및 정치 정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무역이나 경제의 문제로만 귀결시켰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이영, 위의 글). 따라서 막부의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 등의 왜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고려(조선) 외교 활동을 당시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 측면에서 논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논하고 있다(이에 대한 내용은 이영, 앞의 주(7)의 글,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을 참조). 이는 비단 나카무라 한 연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나카무라와 함께 대외관계사 학계를 이끌어 간 다나카 다케오, 심지어 일본의 중세시기 규슈연구의 대가이자 『今川了俊』(吉川弘文館, 1964)을 집필한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세종대에는 전대인 태종대에 비해 피로인 송환 횟수가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¹⁹⁾ 피로인 송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조선 태조~태종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나카무라와 현재 학계의 논리를 비교해볼 것이며, II 장에서는 나카무라의 주장처럼 피로인이 송환된 이후 왜구의 침구가 실제로 없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나서 III 장에서 사료를 통해 왜구가 과연 해상으로 ‘전환’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피로인 송환을 통해 해구(=왜구)가 해상으로 전환되었다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논리가 사실인지 검토하려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를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이라 명명하기로 한다.²⁰⁾ 이번 검토는 현재 학계에서 통설

19) 関周一, 위의 글, <表 1> 및 한윤희, 위의 글, <표 1> 참조.

20) 이 설을 계승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바로 다나카 다케오이다. 다나카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도쿄대학 국사학과 후배로, 왜구 연구에서 최초로 전기왜구(前期倭寇)와 후기왜구(後期倭寇)로 그 성격을 구분하였는데(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2), 이러한 분류에 대해 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桃木至朗 編, 『海城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참조), 또한 다나카 본인도 이러한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14~15세기의 왜구’, ‘16세기의 왜구’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1982(2012년에 講談社学術文庫로 출판)).

다나카는 14~15세기에 활동한 왜구(=전기왜구)는 단순히 생활 필수 물자(식량) 약탈을 목표로 한데 반해, 16세기의 왜구(=후기왜구)는 밀무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田中健夫, 위의 두 연구서 등) 그러나 다나카는 이후의 논고에서 14~15세기의 왜구가 대규모 집단이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동아시아 통교권의 존재에서 그 이유를 찾았는데, 상인의 행동권과 왜구의 행동권이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会史』 第1卷, 岩波書店, 1987, 168쪽)고 하면서, 후기왜구와 같이 전기왜구의 성격도 상인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왜구의 주체에 있어서도 전기왜구는 일본인도 있었지만 화척(禾尺)·재인(才人) 등의 조선인도 많이 참가했을 것이라고 하여, 소위 <왜구=고려·조선인 주체>설을 주장하였다(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24쪽). 이는 다시 다나카의 도쿄대학 후배 교수였던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경계인(境界人)>설로 이어진다.

(通說)로 여기고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일환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선 그의 연구는 모두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가. ‘평화적 통호자(通好者)’에서 ‘평화적 통교자(通交者)’로

본장에서는 나카무라의 연구를 비롯하여 선행연구가 피로인 송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평화로운 통호자(平和な通好者)’에 대한 용어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카무라의 글 곳곳에서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나카무라 이후 타 연구자들의 논고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학계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나카무라는 패전 이후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과 덴리대학(天理大學)에서 재직했었는데, 흥미롭게도 나고야대학의 교수인 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는 <왜구=고려·일본인 연합설>을, 덴리대학의 교수인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는 <왜구=다민족·복합적 해석설>을 주장하게 된다(이 영, 위의 주(7) 글, 「조선사 편수관」).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 연구 및 이후의 왜구 연구에 관한 동향에 대해서는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을 참조. 비슷한 글로는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가 있음). 이렇게 다나카를 비롯하여 이후 연구자들의 위와 같은 왜구 주체설, 그리고 왜구의 발생 원인을 고려 정부의 무능함이나 토지제도의 문란에서 찾는 일단의 연구들은 나카무라가 제시한 왜구 패러다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이 영, 위의 글, 「조선사 편수관」)고 한다. 어쨌든 본고는 다나카 다케오의 소위 <14~15세기 왜구의 변질>설의 첫 출발점인 나카무라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나카무라의 학설에 대해 관련 연구에서 고찰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통호자’는 나카무라의 논고에서 자주 등장한다. 때로 ‘평화로운 교통자(交通者)’²¹⁾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평화로운 통호자(通好者)’로 쓰이고 있다. 나카무라의 연구 외에 왜구 및 피로인 송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완전히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15세기에 들어와 왜구가 평화로운 존재로 변모하였다고 하면서, ‘평화로운’이나 ‘평화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상인)로 전환됐다고 보는 견해

연구자	연도	내 용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1934	“왜구의 배후에 숨은 통제자인 것 같은 자(者)도 점차 <u>평화로운 통호자</u> 로서 조선 연해를 방문하게 되었다.” ²²⁾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藏)	1939	“이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왜구로서 활약한 자가 점차 <u>평화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상인</u> 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명확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²³⁾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1959	“왜구의 행동 상황, 구성원을 검토하고, <u>평화적인 상업활동</u> 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규명하고 싶다.” ²⁴⁾
	1982	<u>평화적 통교</u> 의 전개 ²⁵⁾

21) 中村榮孝, 위의 글, 15쪽 및 中村榮孝, 위의 책, 『日鮮關係史の研究』(上) 152쪽.

22) 中村榮孝, 위의 글, 15쪽.

23) 秋山謙藏, 위의 책, 478쪽. 아키야마의 경우, ‘평화로운 통교(平和なる通交)’라는 용어를 나카무라에 앞서 사용한 글이 있으나, 그 내용이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이 조선과 평화로운 통교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에서 평화로운 통교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秋山謙藏, 『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 『史学雑誌』 제42권 제4호, 1931, 4의 39(435)) 표에는 넣지 않았다.

24) 田中健夫, 위의 주(6)의 책, 2쪽.

25) 田中健夫, 위의 주(20)의 책, 『倭寇, 海の歴史』.

위는 왜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뿐이다. 어쨌든 1934년에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평화로운 통호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아키야마 겐조가 1939년 왜구가 ‘평화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상인’으로 이행했다고 하였으며, 다나카 다케오도 아키야마와 마찬가지로 소위 전기왜구(前期倭寇), 즉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상업활동’으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다나카는 1982년에 출판한 『倭寇, 海の歴史』에서 해당 시기의 왜구가 조선·중국과 평화적으로 통교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미로 절(節)의 제목을 ‘평화적 통교의 전개(平和的通交の展開)’라고 쓰고 있다.

이외에 왜구를 직접적으로 평화적 통교자라고 지칭하거나 왜구가 상인으로 이행했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세키 슈이치·스다 마키코(須田牧子) 등의 일본의 대외관계사 관련 연구자들의 논고에서 ‘평화적 통교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²⁶⁾

나카무라가 사용한 이 용어가 점차 관련 연구에서 완전히 하나의 키워드(keyword)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008년에 출간된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桃木至朗 編, 岩波書店, 2008)이다. 이 책은 해역아시아사연구회²⁷⁾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간행된 것으로, 9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관한 일본의 연구에 대해 32명의 연구자가 각 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된 사료를 소개, 최근의 연구 경향까지 언급한 연구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²⁸⁾ 2012년에는 한국에 번역본까지

26)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95쪽; 関 周一, 위의 주(2)의 책, 41쪽;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學出版會, 2011, 34쪽.

27) 해역아시아사연구회란 1993년에 대외관계사 및 해상교류사 등을 전공하는 간사이(關西)의 젊은 연구자·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구회이다.

(해역아시아사 연구회 공식 블로그 참조 <https://plaza.rakuten.co.jp/kaiikiofficial/>)

28) 김연옥은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관련 연구동향을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및 『史学雑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김연옥,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나와 있다.²⁹⁾ 본 책의 제1편 제2부의 「제9장 ‘왜구론의 행방(倭寇論のゆくえ)’」은 ‘1.전기왜구’, ‘2.후기왜구’ 이렇게 두 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전기왜구’의 소제목 중 (8)의 제목이 ‘왜구에서 평화적 통교자로(倭寇から平和的通交者へ)’이다. 해역 아시아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만큼³⁰⁾ 본서의 내용은 일본의 통설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책에 나카무라가 늘 사용하던 ‘평화적 통교자’에서 한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가 아예 한 챕터(chapter)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용어는 한국의 관련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신편 『한국사 22』에 수록된 내용을 들 수 있다.

- A. 조선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남쪽 변경의 평화였고, 기본방식은 왜구를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³¹⁾
- B. 제1기는 태조 원년(1392)에서 세종 원년(1419)까지로 중앙정부 간에 국교를 체결하고, 왜구진압정책에 진력한 시기이다. 또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되었는데 조일통교의 성립기 내지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³²⁾
- C. 조선 초기의 성공적인 왜구대책으로 인해 왜구들은 분해되면서 대부분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³³⁾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이 『한국사』 시리즈는 1970년대에 총 25권을 간행하여 해방 이후 한국사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이후 연구 성과가 미진한 분야를 연구하여 1991년 ‘신편 한국사 편찬

29) 모토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30) 「제9장 왜구론의 행방(倭寇論のゆくえ)」의 집필 담당은 하시모토 유(橋本雄)·요 네타니 히토시(米谷均)로, 두 사람 모두 일조(日朝)·일명(日明)관계사 연구자이다.

31) 하우봉, 「4.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370쪽.

32) 하우봉, 위의 글, 372쪽.

33) 하우봉, 위의 글, 376쪽.

위원회'를 구성, 총 60권에 달하는 새로운 『한국사』를 간행하게 된다.³⁴⁾ 한국사에서 통설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책에서도 앞에서 살펴봐왔던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A·B·C 모두에서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변질'(C) 내지는 '전환'(A·B)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왜구가 '분해'(C)되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구가 분해·변질되었다는 주장은 바로 다나카 다케오의 주장이며,³⁶⁾ 이 책에서도 다나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³⁷⁾

34) 『한국사 간행취지』, 위의 주(31)의 책.

35) 하우봉의 글에서 이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는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예 이상으로 더 발견되고 있다(하우봉, 위의 글, 376쪽). 이 외에 하우봉은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된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라는 책에서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 부분을 집필하였는데, 본문의 예시 그대로 똑같거나(A), 약간 축약된 형태일 뿐(B),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하우봉,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36) 14~15세기의 왜구가 다른 존재로 분해·변질되었다는 것이 다나카 다케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다나카는 왜구가 특히 세 가지 방향으로 분해 내지는 변질되었다고 보았는데, <1.투화왜인, 2.사송왜인 혹은 흥리왜인, 3.원래대로의 해적>이 바로 그것이다(田中健夫, 앞의 주(6)·(20)의 책. 이 외에도 그의 왜구 관련 연구서들에서 왜구의 변질설이 등장한다.). 그는 왜구가 분해된 이유로, "무로마치 초기의 무역상인이 왜구 진출과 선을 같이 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그 배후에 빈번한 남해무역과의 연계를 가지며, 조선의 회유책과 우리 나라 서국(西國) 제호족의 무역장려책의 미묘한 상대관계를 만나, 조선·우리 나라의 외국물자 수요의 요망에 따르면서 그 활동을 전개했다. 때문에 주위의 정세에 따라 수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상인으로서, 사인으로서, 때로는 해적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던 것도 또한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田中健夫, 위의 주(6)의 책, 32쪽). 즉 왜구가 수시로 모습을 바꾼 이유는 왜구의 내부 사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위의 정세, 즉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왜구 발생의 원인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왜구도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고려 국내 정치의 문란 및 고려의 무역 제한 등,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田中健夫, 앞의 주(20)의 책). 어쨌든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7) 하우봉의 글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대개 본고에서 거론하는 다나카·나카무라와 같이 대표적인 왜구 연구자들의 연구이다(하우봉, 앞의 주(31)의 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나카무라 히데다카로 시작된 ‘평화적 통호자’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평화적 통교자’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학계에서 14·15세기의 왜구가 평화적인 상인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평가

앞서 말했듯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조선과 통교하는 왜인이 늘고, 결국 피로인 송환이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주장의 시작이자 저명한 논고인 「室町時代の日鮮關係」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나카무라는 2절 ‘倭寇から日鮮の修交へ’에서 고려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禁倭使節) 파견부터 시작하여,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왜구를 중심으로 한 한일간의 외교 교섭에 대한 과정 및 왜구 침구에 대한 고려·조선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내용 중 피로인 송환과 관련이 있는 두 문단을 비교해보자. 아래의 1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설명이고, 2는 조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설명인데, 1과 2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리하여 막부의 세력을 대표하여 서국(西國)을 다스리던 규슈탄다이(九州探題)가 이에 직접 일여(日麗) 외교의 임무를 맡게 되고, 그 지지자인 추고쿠(中國)의 오우치씨(大内氏)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와 사빙(使聘)을 통하게 된 것인데, 저쪽(고려, 필자 역)이 해적의 금제(禁制)를 요청하고, 피로인구의 쇄환을 요청하기 위해 누누이 사신을 파견해 온 데 대해, 우리(일본, 필자 역)는 ①이에 수반하는 신물(信

物)의 이윤을 목적으로, 일단의 금제를 명하여 ②관하(管下) 및 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 ③점차 수호의 사신이 왕래하고, 이윽고는 서국(西國)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자가 속출하여, ④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된 것이다.³⁸⁾

2. ⑤탄다이(探題)의 이와 같은 통교(通交)는 크게 진서(鎭西)의 재다이묘(大名)를 자극한 것처럼, 태조 4년에는 시마즈씨(島津氏)가 전매되어 온 피로인구를 송환하여 好(수호, 필자 역)를 통(通)하고, 그 후 매해 사신을 파견하고,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도 역시 빈번히 사신을 보냈으며, 이키(壱岐) 및 하카타(博多) 방면에서도 통호(通好)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요컨대 일찍이 왜구 때문에 약탈되어 와 노예로 사역되고 있던 자를 ⑥송환하면 의외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간취하고 나서의 통호이며, 조선은 이에 의해 포로 쇄환을 행하는 동시에 해구의 단속을 요구하고, 그 진압의 한 방법으로 삼고자 시도한 것인데, ⑦이에 수반하여 당시 점차 하카타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던 무역에 이상한 발전이 발견되는 것이다. ⑧그리하여 조선으로 계속해서 도항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차츰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하는 단서가 스스로 열리게 되었다.³⁹⁾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1과 2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대구(對句)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38) 中村榮孝, 위의 글, 9쪽.

39) 中村榮孝, 위의 글, 12~13쪽.

<표 2>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

	견해	내용	기호
(1)	피로인 송환의 목적	경제적인 이익 추구	①·⑥
(2)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규슈 제호족의 조선과의 통교 증가	③·⑤
(3)	피로인 송환의 의의	·해구가 해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됨	④·⑧
(4)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하카타 지역의 무역 발전	②·⑦

위의 표와 같이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 피로인 송환의 목적 : 나카무라는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을 비롯하여, 오우치 요시히로·시마즈씨 등 모든 송환자의 송환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이마가와 료순의 송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은 당시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군사·외교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⁴⁰⁾ 피로인 송환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피로인 송환자들의 송환 목적에 대해 오로지 무역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데,⁴¹⁾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경우처럼 다른 송환자의 송환 목적에 대해서도 당시 송환자가 처한 정치·군사·외교적인 상황을 상호 유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카무라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료순을 비롯

40) 한윤희, 위의 글.

41) 한윤희, 앞의 주(5)의 글.

하여 규슈의 제호족이 조선과 피로인을 송환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송환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 추구로 보고 있다.

(2)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 : 나카무라는 료순이 피로인 송환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이를 모방하는 규슈의 제다이묘들이 피로인 송환을 빌미로 조선과 통호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선 초기 피로인 송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⁴²⁾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정황상의 추측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다.

(3) 피로인 송환의 의의 : 1에서 나카무라는 신물(信物)의 이윤을 목적으로 서국 각지에서 피로인 송환을 모방하는 자가 속출하고, 결국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일본과 조선간의 '새로운 관계'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2에서 대구되는 부분이 ⑧이기는 하나, '새로운 관계'와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의 접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나카 다케오의 언급에 대해 살펴보자.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왜구 금압과 포로 송환의 요구는 이어지고, 우리 나라에서도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사다요)이 일천 수백 명의 조선인을 송환한 것을 필두로 하여, 규슈 제호족에 의한 부로(俘虜) 송환이 이어져, 여기에 일선(日鮮) 관계는 사적(私的) 교섭에서 공적(公的) 교섭으로 일진(一轉)을 보게 되는데 이르렀다.⁴³⁾

다나카 다케오는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⁴⁴⁾

42) 왜 이시기에 피로인 송환이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송환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인 상황, 그리고 일본의 대명(對明)·대조(對朝) 관계의 불안성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추후의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43) 田中健夫, 앞의 주(6)의 책, 13쪽.

44) 다나카는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秋山謙藏, 앞의 주(16)의 글)을 주석에 표기하였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사적(私的) 교섭에서 공적(公的) 교섭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이마가와 료순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 고려와의 외교 교섭을 경제적인 댓가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적 교섭 내지는 사적 통교로 보는 시각⁴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카무라는 료순의 고려와의 교섭에 대해 “규슈탄다이가 중앙 정부를 제쳐두고”라는 표현을 쓰고,⁴⁶⁾ 또 “이마가와 사다요(료순)는 신왕조대(代)가 되자, 중앙 정부와 아무런 연락 없이 빈번한 직접 교섭을 전개해 갔다.”고 하였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정종 1년(1399) 5월, 무인년(1398)에 왜구 금압을 위해 통신관으로 일본에 갔던 박돈지(朴惇之)가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일본국 대장군(日本國大將軍), 즉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치고 피로인 남녀 1백여 인을 송환하였다.⁴⁸⁾ 나카무라는 이 사절 파견에 대해 “이것이 정식으로 아시카가 쇼군에서 조선으로 수호(修好)의 사신을 파견한 시초로 여겨진다.”⁴⁹⁾고 평가하고 있다. 요컨대 나카무라는 고려 말부터 일본과 왜구 문제로 교섭하고 통교한 것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독자적

데, 근거로 든 아키야마 겐조의 논문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다. 주석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 45) 나카무라가 료순의 대고려(조선) 외교를 경제적인 목적, 사적 교섭으로 폄하하는 것은 현재 일본학계에서 소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국왕 책봉=대명 무역의 이익 추구 목적>설로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주(7)의 글,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참조.
- 46) 中村榮孝, 앞의 주(4)의 책, 『日本と朝鮮』, 73쪽. 가와조에 쇼지 역시도 “이마가와 료순은 막부를 제쳐두고” 고려와 교섭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川添昭二, 「今川了俊の對外交渉」, 『九州史學』 75, 1982, 40쪽).
- 47) 中村榮孝, 위의 책, 78쪽.
- 48)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조.
- 49) 中村榮孝, 앞의 주(4)의 글, 「室町時代の日鮮關係」, 14쪽.

이고 사적인 교섭일 뿐, 막부 쇼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남북조내란 당시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과 함께 규슈를 평정하고⁵⁰⁾, 고려 정부에 군대를 파견해 왜구 금압에 힘쓰던 오우치 요시히로⁵¹⁾가 이 박돈지의 사신 파견 때 중심인물로 활약한 것이다.⁵²⁾ 당시 오우치 요시히로는 쇼군으로부터 사신 접대를 명받고, 조선 사신과 쇼군과의 사이에서 외교 문제를 중개하는 등⁵³⁾ 1395년 이마가와 료슌의 갑작스런 규슈탄다이직 해임⁵⁴⁾ 이후, 마치 그의 역할을 하기라도 하듯이 조선과 외교 교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⁵⁵⁾ 또한 나카무라는 위의 사절 파견에 대해 “어쨌든 여기에 오우치씨와의 수호를 매개로 무로마치 막부와 조선과의 통신이 열린 것이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⁵⁶⁾ 나카무라 본인이 논고에서 누누이 료슌뿐만 아니라 오우치씨도 경제적인 목적에서 중앙정부를 제쳐두고 고려(조선)과 사적 통교

50) 오우치씨의 규슈 진출에 대해서는 松岡久人, 『大内義弘』, 人物往來社, 1966 참조.

51) 고려 우왕 5년(1379) 5월, 우왕 4년에 금왜사절로 일본에 갔던 한국주가 귀국하였는데, 오우치 요시히로가 당시 박거사로 하여금 군사 186명을 거느리고 함께 가도록 하였다(『고려사』 권134, 우왕 5년 5월 무인조).

52) 위의 주(51)과 같이 오우치 요시히로는 1379년 군대를 고려에 파견한 이후 고려와의 통교 관계에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다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규슈탄다이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태조 4년(1395) 12월에 갑자기 16년 만에 조선에 토물을 바치며 등장하고(『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을사조),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선과 통교하고 있다(오우치씨의 조선과의 통교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須田牧子, 위의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53) 박돈지의 사행 파견 과정과 오우치씨의 외교 교섭에서의 중개자 역할에 대해서는 須田牧子, 위의 책, 『第一章 大内氏の対朝鮮關係の變遷』을 참조.

54) 이마가와 료슌의 규슈탄다이직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松岡久人, 위의 책, 151~156쪽 참조.

55) 료슌의 갑작스런 규슈탄다이직 해임의 배후 인물로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그 중심 인물로서 잘 알려져있으며(松岡久人, 위의 책), 요시히로는 료슌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해임된 지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에 사절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왜구 문제를 둘러싼 대조선 외교 교섭에 관여하고 있다(須田牧子, 위의 책).

56) 中村榮孝, 위의 글, 14쪽.

를 했다고 언급했음에도,⁵⁷⁾ 박돈지 사행 당시 오우치씨의 중개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오우치씨와의 수호를 매개로 무로마치 막부와 조선과의 통신이 열린 것이었다.”⁵⁸⁾라고 그의 중개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료순처럼 사적으로 고려·조선과 통교한 오우치씨가 이번 막부의 조선 사절 파견에도 사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이것 역시 일본과 조선과의 ‘정식’ 교섭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⁵⁸⁾

정리하자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에 대한 의의로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진전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일본과 조선간의 새로운 관계’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이 규슈탄다이직에서 퇴임하기 직전까지 일본과 고려·조선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적인 교섭만 있을 뿐이었으나, 그가 규슈탄다이직에서 퇴임한 이후부터는 막부 쇼군이 직접 조선과 통교함으로써 드디어 공적 교섭으로 전환되어 일본과 조선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우치씨 역시 사적 통교자로 본

57) 나카무라는 “이처럼 규슈탄다이가 중앙 정부를 제쳐두고, 직접 일여(日麗) 외교의 중임을 맡게 되고, 그 지지자 오우치씨도 마찬가지로 고려와 사자를 왕래하게 되었다. 그들은...(중략)...신물(信物) 입수의 이윤을 목적으로...(중략)...피로인구를 송환하고 수호의 사신을 왕래시켰다.”(中村榮孝, 앞의 주(4) 책, 『日本と朝鮮』, 73쪽) 고 하며 료순과 함께 오우치씨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고려와 사적인 교섭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58) 이외에도 그의 논고를 사료와 함께 검증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나카무라의 의도적인 서술 방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극히 간단하게 서술하였는데 이는 황국사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큰 목적에 어울리는 사실(史實)을 강조하고 거기에 반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이 영, 앞의 주(7) 글,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과 문제점」). 확실히 그의 글 곳곳에서 사실을 나열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므로 피로인 송환에 대한 의의로는 성립될 수 없는 의견이다.

한편, 앞에서 ‘평화적 통교자’라는 용어가 한국학계에서도 자리잡았음을 서술하였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나카무라의 피로인 송환에 대한 평가 세 가지도 모두 한국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다음의 서술을 살펴보자.

이 때까지는 九州探題인 今川了俊과 西國地域의 유력호족인 大内義弘이 대조선외교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중략) 구주지역의 호족들도 조선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앞다투어 피로인 송환에 나섰다.

이와 같이 조선정부가 실정막부와 함께 서국지역 호족들과도 교섭하는 형태와 방식은 고려말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 조선 국왕과 막부와 사절왕래를 계기로 점차 사적 교섭에서 공적 교섭으로 성격을 바꾸어가게 되었다.⁵⁹⁾

위는 1절에서 언급했던 신편 『한국사 22』 중 일부이다. 내용을 보면 나카무라의 논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규슈탄다이와 오우치씨가 막부를 제쳐두고 직접 고려(조선)와 외교에 나섬 → 이에 자극을 받은 규슈지역의 호족들이 피로인 송환에 나섬 → 막부도 피로인 송환하며 조선과 사절 왕래, 이로써 공적 교섭이 성립>의 순이다. 발표된 지 약 86년이 지난 나카무라의 논고가 한국학계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의의인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하는 계기’에 대해서는 본고의 3·4장에 걸쳐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9) 하우봉, 위의 글, 370쪽.

60) 이 영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고려 말 왜구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는지,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 시리즈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학계는 고려 말 왜구에 대해서도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에 의존하고 있었다(이 영,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사』 및 『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4)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⑦하카타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던 무역에 이상한 발전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대구되는 것이 ‘②관하(管下) 및 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②관하(管下)’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어쨌든 하카타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②와 ⑦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므로,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하카타 지역이 무역으로 발전했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로인 송환이 하카타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주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②‘하카타(博多)의 무역시장에 모이는 피로인구-왜구가 고려·중국 방면에서 약탈해 온-를 송환하면서’라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하카타에 (피로인구를 사고 파는) 무역시장이 있었고, 송환자들은 그곳에서 피로인을 ‘사서’ 송환을 했다는 말로 이해된다. 즉, 송환자는 피로인을 무역시장에서 사서 송환을 했을 뿐, 그들을 납치해서 송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송환자와 왜구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⁶¹⁾ 그런데 피로인 송환으로 인해 결국 하카타의 무역이 발전했다는 주장은 아키야마와 비슷하다.⁶²⁾ 아키야마는 당시의 노예매매 상황 등에 대해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서 하카타의 무역 발전에 이러한 노예매매 상인의 활동도 현저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³⁾ 반면 나카무라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하카타에 무역시장이 있었고, 송환자가 하카타에 있는 피로인을 사서 송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61) 아키야마·다나카 등의 연구자들이 송환자 중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 및 지지자 오우치씨와 왜구와의 관계에 대해 “극히 긴밀”하다거나(秋山謙藏, 앞의 주(6)의 책, 476쪽; 田中健夫, 앞의 주(20)의 책, 『倭寇と勘合貿易』, 22쪽),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는(田中健夫, 앞의 주(6)의 책, 13쪽) 반면, 나카무라는 송환자와 왜구와의 관계라던가 송환자의 정체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62) 秋山謙藏, 앞의 주(6) 책.

63) 秋山謙藏, 앞의 주(6) 책, 478쪽.

앞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로인 송환의 목적·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피로인 송환의 의의·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바, 나카무라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사료 내지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사실의 결과만을 나열하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피로인 송환에 관한 그의 패러다임은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다른 연구자들에게 확대·재생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의 피로인 송환에 관한 견해 중 현재 학계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주장 중 하나인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3. 조선 초 일본의 사절 파견과 왜구의 침구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나카무라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왜구는 평화로운 통호자(즉, 해상)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의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는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사실인지 살펴보하고자 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왜인이 무역을 하기 위해 조선에 오는 횡수가 증가하면 왜구 침구 행위는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 표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표 3> 조선 초기(태조~태종 연간) 일본의 사절 파견·피로인 송환·왜구 침구 횡수

시기(년)	일본사절 파견 횡수 ⁶⁴⁾	피로인 송환 횡수	왜구 침구 횡수	시기(년)	일본사절 파견 횡수	피로인 송환 횡수	왜구 침구 횡수
태조원(1392)	1	0	0	태종6(1406)	16	8	12
태조2(1393)	2	1	10	태종7(1407)	22	7	7
태조3(1394)	2	1	14	태종8(1408)	22	8	18
태조4(1395)	7	3	5	태종9(1409)	23	0	2
태조5(1396)	2	0	12	태종10(1410)	23	4	0
태조6(1397)	10	0	14	태종11(1411)	16	0	0
태조7(1398)	3	0	0	태종12(1412)	22	1	0
정종원(1399)	7	1	4	태종13(1413)	33	1	1
정종2(1400)	8	2	0	태종14(1414)	29	1	0
태종원(1401)	11	3	4	태종15(1415)	31	2	1
태종2(1402)	9	2	5	태종16(1416)	32	0	0
태종3(1403)	10	3	8	태종17(1417)	27	0	2
태종4(1404)	6	0	6	태종18(1418)	11	1	0
태종5(1405)	9	1	0				

* 위의 표는 『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위의 표에서 우선 일본의 사절 파견 양상부터 살펴보자. 태조 원년(1392)부터 태종 5년(1405)까지 14년간 매해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사절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태종 6년에는 그 전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횡수가 늘고, 태종 7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해 평균 20회를 넘게 된다.

한편, 일본의 피로인 송환도 사절 파견 횡수가 급증하게 되는 태종 6년(1406)부터 급증하게 된다. 급증 시기가 태종 6년부터 태종 8년까지 3년이라는 단기간이기는 하나, 나카무라의 주장대로라면 피로인 송환이 늘어나는 이때부터 왜구 침구는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왜구 침구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일본사절 파견 횡수'에는 '피로인 송환 횡수'가 포함된 것임.

<표 4> 조선 초기(태조~태종 연간) 왜구 침구의 양상

	시기(년)	침구 횟수(회)	침구 양상	비고
①	1392~1397	0~14	(고려 말에 비해)증가	
②	1398~1400	0~4	감소	
③	1401~1405	0~8	다시 증가	
④	1406~1408	7~18	격증	★1408년이 피크기
⑤	1409~1418	0~2	점차 감소	

조선 초기 왜구 침구의 양상을 다섯 시기로 구분해보았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태조 원년(1392)부터 태조 6년(1397)까지 0~14회의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왜구가 조선에 갑자기 침구했다기 보다는 고려 말에 이어 지속적으로 침구한 것으로,⁶⁵⁾ 고려 말에 비해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 양상을 증가로 보았다. 이후 ②태조 7년(1398)부터 정종 2년(1400)까지는 0~4회로 감소하고 있다. ③태종 원년(1401)부터 태종 5년(1405)에는 0~8회로 ②의 시기보다 2배로 침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④태종 6년(1406)부터 태종 8년(1408)에는 침구가 7~18회로, ③의 시기보다는 약 2배, ②의 시기보다는 약 4배 이상 침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종 8년은 침구 횟수가 18회로 태조~태종 연간에 걸쳐서는 가장 많은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어, 왜구 침구의 피크기(peak period)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태종 9년(1409)부터 태종 18년(1418)까지는 0~2회로, 침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리하자면, 조선 태조~태종기의 왜구 침구는 <증가-감소-

65) 이를 고려 말과의 침구 상황(이 영, '<표 4> 경인년 이후의 왜구 침구',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82쪽)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1380년~1385년의 침구 횟수(8~14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왜구가 조선조에 들어와 갑자기 침구했다기 보다는 고려 말기인 1387년~1391년에 1회~9회에 걸쳐 침구하고 있으므로, 조선 태조대부터의 왜구 침구는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증가-격증(최극성기)-점차 감소>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⁶⁶⁾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사절 파견 양상·피로인 송환 양상·왜구 침구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사절 파견 횟수가 급증하는 태종 6년(1406)에 왜구의 침구도 12회로 급증하게 되고, 태종 8년(1408)에는 제일 많은 18회를 기록하고 있다. 즉, 피로인 송환 횟수가 급증하는 태종 6년부터 8년까지 3년간이 조선조에 들어와 왜구의 침구가 가장 격심한 시기인 셈이다. 이후 태종 18년까지 왜구 침구는 0~2회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나카무라의 주장대로라면 피로인 송환 및 일본의 사절 파견이 급증하게 되는 태종 6년부터 왜구 침구는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표를 분석한 결과, 나카무라의 주장과는 반대로 왜구 침구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격증하였다. 이후에도 왜구의 침구는 간헐적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조선을 침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상황은 사료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일본 사절의 파견이 늘어나는 당시 왜구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66) 조선 초기 왜구의 침구가 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의 규슈 정세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영에 따르면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은 쓰시마(對馬)의 슈고(守護) 쇼니씨(少弐氏)가 규슈 본토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에는 왜구의 침구가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대폭 감소하거나 단 한 차례도 침구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이 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후에 이 영,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에 수록)). 특히,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규슈에서는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종식된 이후, 오우치씨(大内氏)의 규슈 진출로 인해 토착 호족인 오토모씨(大友氏)·기쿠치씨(菊池氏)·쇼니씨 등과의 대립으로 인한 쟁란이 끊이지 않았다. 즉, 고려 말기에는 규슈가 남북조 쟁란의 여파로 전쟁 상황에 놓여있었다면, 조선 초기에는 오우치씨의 본격적인 규슈 진출로 인한 토착 호족들과의 대립 양상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 「여말~선조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참조.

다음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상서(上書)하여 전달한 시무(時務) 20조(條) 중 하나이다.

<사료 1>

1. “왜노(倭奴)가 근심이 된 지 오래인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봉(封)하여 왕으로 삼았고, 주는 것을 후하게 하니, 만족하고 기(氣)가 나서 횡역(橫逆) 방자(放恣)함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마땅히 노성(老成)하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인호(隣好)를 수결(修結)하여 그 형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신(臣)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근심이 될 것은 반드시 이들 왜노(倭奴)’라고 합니다.”하였다.(이하 생략)⁶⁷⁾

원래 문신(文臣) 출신이나, 고려 말 우왕 대에 왜구가 승천부(昇天府)에 대거 침입하자 성석린은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임명되어 출전하였는데, 이때 후퇴하려는 장수들을 격려하여 결국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⁶⁸⁾ 고려 말대부터 왜구의 침구를 직접 목격하고 싸움까지 치룬 그가 왜인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왜구는 항상 조선의 근심”이니 학식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인호(隣好)를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만큼 왜구의 존재는 당시 조선에게 있어 ‘평화로운 통교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구가 몹시 치성한 이때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여 태종이 상복을 입고 여러 날 정사를 보려 하지 않자, 성석린과 우정승(右政丞) 이 무(李茂)가 “지금 <중국의> 사신(使臣)이 관(館)에 있고 왜적(倭賊)이 변방을 범하는데, 어떻게 여러 날 정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⁶⁹⁾라며 태종에게 정사를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이라

67)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갑술조.

68) 『고려사』 권제117, 열전제30, 성석린.

69)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6월 무술조.

는 새로운 정부를 일으킨 태조의 승하임에도, 신하들이 왕에게 청정(聽政)을 요청할 정도로 왜구는 조선 정부의 큰 근심거리였다. 이외에도 천재지변과 시정의 잘못을 신하들과 논의하던 태종이 전해의 흉년으로 한 도(道)의 백성들이 모두 굶주림을 당하여 원망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연군(鍊軍)·인보(隣保)·양전(量田) 세 가지 일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바이나, 우리나라는 해구(海寇)가 염려스러우니, 어찌 폐지할 수가 있겠느냐?”⁷⁰⁾라고 말할 정도였다. 곧 천재지변으로 인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 왜구의 침구가 더 염려스러워 여러 가지 정책을 폐지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이처럼 왜인들의 왕래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왜구의 침구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은 나카무라의 주장처럼 ‘평화로운 통교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15세기 왜구의 활동 양태

본 장에서는 왜구라는 존재가 과연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조선 태조에서 태종 연간의 왜구 침구를 염두에 두면서 같은 시기 중국의 왜구 침구 상황을 살펴보자. <표 5>는 왜구 침구 횟수를, <표 6>은 <표 5>를 가지고 왜구의 중국 침구 양상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70)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4월 을축조.

<표 5>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중국 침구⁷¹⁾

시기(년)	왜구 침구 횟수	시기(년)	왜구 침구 횟수
홍무25(1392)	0	영락5(1407)	0
홍무26(1393)	1	영락6(1408)	1
홍무27(1394)	2	영락7(1409)	2
홍무28(1395)	0	영락8(1410)	2
홍무29(1396)	0	영락9(1411)	4
홍무30(1397)	0	영락10(1412)	0
홍무31(1398)	3	영락11(1413)	2
건문1(1399)	0	영락12(1414)	0
건문2(1400)	0	영락13(1415)	1
건문3(1401)	2	영락14(1416)	2
홍무35(1402)	0	영락15(1417)	1
영락1(1403)	1	영락16(1418)	2
영락2(1404)	4		
영락3(1405)	0		
영락4(1406)	8		

<표 6>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중국 침구 양상

	시기(년)	침구 횟수	침구 양상	비 고
㉠	1392~1403	0~3	간헐적 침구	
㉡	1404~1406	0~8	격증	★1406년이 피크기
㉢	1407~1418	0~4	꾸준히 침구	

왜구는 ㉠홍무 25년(1392)부터 영락 1년(1403)까지 약 12년 동안에는 0~3회 정도로, 평균 매해 1.5회의 침구 횟수를 보이고 있다. 1395~1397년·1399~1400년에는 연속적으로 침구를 하지 않고 있어,

71) <표 5>는 鄭樸生의 『明·日關係史研究』(雄山閣, 1994) 중 ‘表13 永樂年間における倭寇入寇の実態’, 田中健夫의 『倭寇, 海の歴史』 중 ‘明における倭寇の行動地域と行動回数’, 그리고 『対外關係史總合年表』(対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編, 吉川弘文館, 1999)을 비교·대조하여 작성한 것임.

이 시기에는 왜구가 간헐적으로 침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락 2년(1404)부터 영락 4년(1406)까지 약 3년 동안에는 0~8회 정도로, ㉡의 시기에 비해 대략 3배 가깝게 그 침구 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06년이 8회로, 가장 많은 침구 횟수를 보여 해당 시기 중 왜구 침구의 최극성기(最極盛期)라 할 수 있겠다. ㉢영락 5년(1407)부터 영락 16년(1418)까지 약 13년 동안에는 0~4회 정도로, ㉡의 침구 횟수와 비슷하지만 13년간 1407·1412·1414년의 0회의 침구를 제외하면, 1~4회로 꾸준히 침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조선의 침구 양상과 비교해보자. 양국의 왜구 침구의 격증 시기에 있어서 조선은 ㉣1406~1408년, 중국은 ㉤1404년~1406년으로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최극성기는 조선은 1406년, 중국은 1408년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왜구 침구가 점차 감소하는 ㉥1409년~1418년의 시기에 중국에서는 꾸준히 침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태종 9년부터 급격하게 침구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태종 13·15·17년 정도에만 한두 차례 침구하였을 뿐이다. 침구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태종 13·15년에는 제주 지역을 침구한 것인데,⁷²⁾ 태종 13년의 침구는 왜구가 제주도에 직접 상륙했다기 보다는 경차관을 호송하던 제주 병선 한 척이 우연히 왜구를 만나 싸운 것이었고,⁷³⁾ 태종 17년 7월의 침구는 영일진 병마사(迎日鎭兵馬使) 등이 해안에 올라와 물을 길던 왜구를 만나 5명 중 3명을 사로잡은 것이었다.⁷⁴⁾ 이들 경우는 본격적인 침구라기 보다는 중국으로 침구하기 위해, 혹은 침구하고 돌아가던 중 조선의 병선 내지는 병사와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표 5>와 함께 살펴보면, 실제로 태종 13·15·17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국의 왜구

72)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갑자조.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을축조.

73) 위의 주(72).

74)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7월 신유조.

침구 기록을 볼 수 있다.⁷⁵⁾ 해당 시기 왜구의 주된 중국 침구 지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홍무 25년 ~ 영락 16년 왜구의 주요 중국 침구 지역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75) 조선에 왜구가 간헐적으로 침구하던 이 해당시기에 중국에는 왜구가 지속적으로 침구하고 있다. 나카무라의 논리대로 왜구 침구가 점차 줄어든 그 시기에 왜구가 평화적 통교자로 변모한 것이 맞다면, 조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왜구에 대한 근심·걱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태종 13·15·17년에 명에서 정왜(征倭) 논의가 나오거나, 왜구의 중국 침구가 극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전전공공하고 있다(『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3월 기해조·『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을미조·『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무오조·『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갑자조).

앞의 그림을 보면 왜구가 대부분 중국 동부의 연해 지역을 침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조선의 서해안을 거쳐 가기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의 태종 13·17년의 경우처럼, 왜구는 중국을 침구하기 위한 경유지로 조선의 제주도⁷⁶⁾와 같은 곳에 잠시 들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중국의 침구 횟수의 경우 0~8회로, 조선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규모는 그렇지 않았다.⁷⁷⁾

결론적으로 왜구는 조선에서는 침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에 중국을 꾸준히 침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을 침구한 이들 왜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조선에 침구한 자들과는 다른 존재였을까? 아래는 조선에서의 왜구 침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태종 9년의 기사이다. 피로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하다.

<사료 2>

왜선(倭船) 14척이 풍해도(豐海道) 장산곶(長山串)에 이르러 부녀자 17명을 미라산(彌羅山) 봉졸(烽卒)에게 맡기고 갔다. 왜적이 ㉠중국(中國)의 경계에서 이곳에 이르러 ㉡봉졸 박기(朴基)를 잡아 사변(事變)을 묻고, 우리 나라에 방비가 있음을 알고는 일부러 화호(和好)의 뜻을 보이기 위하여, 지난해 여름에 제주(濟州)·홍주(洪州)·선주(宣州)와 장연(長淵)·옹진(甕津)에서 약탈한 부녀자에게 양식을 주어 육지에 내려 놓고, 곧 백령도(白翎島)로 향하여 갔다. 풍해도 도절제사 김계지(金繼志)가 보고하니...(이하 생략)⁷⁸⁾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76) “제주도는 왜구가 통행하는 길이어서...(이하 생략)”(『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임인조)

77) 영락 연간의 왜구 침구 실태에 따르면 영락 11년 정월의 침구 같은 경우, 왜적 3000여 명이 침구했으며, 또 영락 16년 5월의 침구는 영락 연간의 왜구 침구 규모 중 제일 큰 규모라고 보여지는 경우인데, 왜적의 배가 100척·왜적 7000여 명이 금산위를 침구한 경우이다(鄭燦生, 위의 책, 표13).

78)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신묘조.

<사료 2>는 태종 9년 2월, 왜선 14척이 풍해도 장산곶에 조선의 피로인 17명을 내려놓고 간 기사이다. 그런데 이 왜적들이 피로인을 내려놓고 간 이유가 흥미롭다. 우선 왜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의 “중국의 경계에서 이곳에 이르러”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왜적은 중국에서 노략질을 하고 풍해도 장산곶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장산곶에 이르러 왜적들이 일부러 피로인을 두고 간 것일까? ㉡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조선에 방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호(和好)의 뜻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피로인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조선의 방어가 허술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달랐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료에서 추찰할 수 있다.

<사료 3>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慶尙道水軍僉節制使) 김을우(金乙雨)가 왜선(倭船) 2척을 잡았는데,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윤자당(尹子當)이 모두 죽었다. 왜선 2척이 경상도 국정도(國正島)에 이른 것을 김을우가 잡았는데, ㉢왜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하러 왔다.”고 하고, ㉣곧 종정무(宗貞茂)가 발급한 행장(行狀) 2장을 보였는데, 그 진위(眞僞)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윤자당이 억류하여 놓고 치계(馳啓)하였다.

“잡은 왜인 20인의 배 안에 실은 것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또 대명(大明) 정해위(靖海衛)의 인신(印信)이 있으니, 실로 이들은 도둑질하는 왜구입니다. 사세가 반드시 도망쳐 갈 것 같으니, 모두 죽이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상선(商船)인지 적선(賊船)인지 분별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라.” 하였는데, 명령이 이르지 아니하여 왜인이 과연 틈을 타서 도망해 가므로, 이들을 잡아서 모두 죽였다...(이하 생략)⁷⁹⁾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79)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기미조.

위는 <사료 2>와 같은 일이 있는 지 바로 한 달 후인 태종 9년 3월의 기사이다. 왜선 2척이 경상도 국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때 왜인이 한 척마디가 흥미롭다. ㉔“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하러 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곧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본인들이 조선에 자주 해적질을 하러 오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무역을 하러 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거짓임이 밝혀진다.

㉔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조선에 무역하러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 왜인이 대마도 도주인 종정무(宗貞茂)가 발급한 행장(行狀)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행장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 둘째, 그들이 배에 싣고 온 물건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심지어 중국 정해위의 인신(印信)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저 행장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들 왜구는 중국에서 노략질한 물건들을 조선에 팔기위해 혹은 본섬으로 돌아가던 도중 행장을 위조한 것이 탄로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본인들에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무역자 행세를 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 즉 조선의 방비가 허술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노략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위에서 보았던 <사료 2>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사료3>에서는 ‘행장’을 가지고 무역자 행세를 하였으나, <사료 2>에서는 ‘피로인’을 가지고 그러한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즉, 왜구 행위 중 불리한 상황을 만나면(조선의 방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로인을 조선에 돌려주며 평화로운 통교자인 척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왜구와 해상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아래의 사례들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흥리(興利)하는 왜선(倭船)에 탔다가 조선 진주에서 도망쳐 조선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까지 무사히 송환된 예관음보(倪觀音保)라는 중국인이 말하기를, “저 왜놈들은 모두 병기(兵器)를 간직하였다가 만약 배가 없는 곳에 이르면 침탈(侵奪)하고 병기가 있는 곳에 이르면 흥리(興利)하고자 원합니다.”⁸⁰⁾라고 한다. 또 강원도에 왜선이 출몰한 일로 태종이 승정원에 명해 의논하던 중,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總制府事) 이원(李原)이 “이 도적들은 반드시 경솔하게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반간(反間)이 구집되었다 하더라도 저들은 본래가 욕심이 많으므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여 방비가 없는 곳으로 돌입해서 서절(鼠竊)할 것이 두렵습니다.”⁸¹⁾라고 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왜구는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며 방비가 약한 곳에서는 약탈을 자행하고, 방비가 강한 곳에서는 무역자로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2>와 <사료 3>의 경우 역시 방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만나자 왜구에서 해상으로 그 모습을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들은 중국에서는 약탈 행위를,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약탈한 물건을 파는 매매 행위를 하였다. <사료 3>에서 왜선에 실린 물건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왜인의 무역하러 왔다는 말로 보아, 중국에서 약탈한 물건을 조선에 판매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태종 16년의 기사를 보자.

<사료 4>

예조(禮曹)에 명하여 왜사(倭使)의 마치는 것이 만일 그 나라의 소산(所產)이 아니거든 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중국(中國)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일본(日本)의 객인(客人)과 흥리 왜인(興利倭人)이 파는 중국 물건을 무역하지 마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

80)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갑자조.

81)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정해조.

(慶尙道水軍都節制使) 정간(鄭幹)이 승정원(承政院)에 글을 부치기를,

“㉠왜사(倭使)가 본래 중국에서 훔친 물건을 우리 나라에 팔아서 의식을 자뢰(資賴)하는데, 일찍이 교지(教旨)를 내리어 왜사의 도둑질한 중국 물건을 서울과 외방(外方)에 팔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 왜사가 노기를 발하여 형세가 장차 변을 낼 것 같습니다.”하였다. 의정부·육조·대간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왜인의 성질이 본래 사납고 악하여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무상(無常)한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만역의 마음을 품어 변경(邊境)을 침노하여 민명(民命)을 살해할 것입니다. 빌건대, 전하는 모르는체하여 외방에서 매매하게 하고 다만 서울 안에서 매매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의 전지(傳旨)하기를,

“중국(中國)에 신(臣)이라고 일컬으면서, 중국의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는가?”하였다. 박은(朴崧)이 아뢰기를,

“전하의 이 말씀이 지극하나,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는 것이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왜사를 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해(沿海)의 백성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도적을 접대하였으니, 중국 물건을 외방에서 파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⁸²⁾

* 밑줄 및 기호는 필자에 의한 것임

위의 기사는 일본에서 사절 파견 횟수가 32회로 극에 달한⁸³⁾ 태종 16년의 기사다. 태종은 왜사(倭使)가 바치는 물건 중 일본의 것이 아니면 받지 말라고 예조에 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왜사(倭使)가 중국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사(倭使)”란 바로 ㉣“일본의 객인(客人)과 흥리 왜인(興利倭人)”을 가리키는 것 같다.⁸⁴⁾ 그런데 조선 정부는

82)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을미조.

83) 앞의 <표 3> 참조.

84) 왜사(倭使)란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 일본에서 보내오는 사신을 가리키는데, 본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객인, 흥리왜인, 왜사의 살체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 일본의 객인과 흥리왜인, 즉 상인들이 ㉠조선에서 중국에서 파는 물건을 팔아서 의식(衣食)을 자퇴해야 하는데, 이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조선 변경에서 약탈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조선 정부는 이 상인들이 곧 왜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료를 통해 왜구의 침구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태종 16년 당시 조선 정부는 일본의 상인(=왜구)을 평화적 통교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왜구의 이중적인 모습, 즉 <왜구=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은 ㉢과 같이 연해의 백성을 위해, 즉 혹시나 왜사가 왜구로 돌변해 연해의 백성을 해칠까 우려하여 그들을 우대하는 것이었다.⁸⁵⁾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선을 침구한 왜구는 중국으로 그 침구지역을 옮겨 갔고, 주로 중국에서는 약탈 행위를 하는 ‘왜구’의 모습을, 그리고 조선에서는 흥리를 하는 ‘해상’의 모습을 각각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나카무라를 비롯한 기존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피로인 송환이 왜구라는 존재를 평화로운 통교자, 즉 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①왜구의 침구 지역을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동시킨 것이며, ②중국에서는 ‘왜구’, 조선에서는 ‘해상’과 같이 지역과

85) 당시 끊임없이 도래해오는 일본 사절을 조선이 우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태종 14년 7월 임오조의 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쇼군이 대장경을 조선에 청구하였는데, 대장경판을 보내줄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종은 “다만 우리 지경을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사자(使者)를 통래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임오조). 또한 아리이 토모노리(有井智徳) 역시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통교하면서 명에 대해서는 왜구활동을 행한 자 중에서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팔아 무역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견(一見)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조선이 왜구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서 명에 입구한 왜구가 사송객인 혹은 흥리왜인으로서 명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에 무역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有井智徳, 『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1985, 508쪽).

상황에 따라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조선 초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전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제1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나카무라 히데다카는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조선과 통교를 시작하게 되는 왜인이 점차 증가하여, 결국 이를 통해 왜구는 평화로운 통호자(즉, 해상)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나카무라 이후, 다나카 다케오 등 일본의 대외관계사 학계에서 이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나카무라가 황국사관론자임이 주장되면서 위와 같은 의견 역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일명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이라 명명하고,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보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의 논문 및 저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평화로운 통호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처음 쓰기 시작한 ‘평화로운 통호자’라는 용어가 아키야마 겐조·다나카 다케오 등의 왜구 연구자들의 논고에서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형식으로 쓰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하나의 완성된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나카무라의 <해구에서 해상으로의 전환>설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필자는 고려 말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슌의 피로인 송환은 14세기 말 당시 왜구 문제로 인한 한중일 삼국의 군사·외교적인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매개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조

선 초기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나카무라가 피로인 송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그가 주장하는 ‘피로인 송환의 목적·이마가와 료순의 피로인 송환이 끼친 영향·피로인 송환의 의의·피로인 송환이 하카타에 끼친 영향’은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이었으며, 이는 결론만을 말하고 과정을 말하지 않는 황국사관의 큰 특징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나카무라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의문을 검토하였다.

- 첫째,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었는가?
- 둘째, 왜구와 해상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 셋째,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우선 첫째,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늘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나카무라의 주장과는 반대로 조선과 왕래하는 왜인이 격증한 시기에 왜구의 침구 역시 가장 많았다. 이후에도 왜구는 간헐적이지만 조선을 침구하고 있었다.

둘째, 왜구와 해상이 서로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태조~태종 연간과 같은 시기의 중국에서는 거의 매해 꾸준히 왜구가 대규모로 침구하고 있었다. 즉 조선을 침구하던 왜구가 중국으로 그 침구지역을 이동한 것이다. 사료를 통해 중국을 침구하는 왜구는 조선을 침구하는 존재와 다르지 않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즉 방비가 있는 상황을 만나면 평화로운 통교자(=무역자, 해상) 행세를 하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왜구와 해상 두 가지의 면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면모를 달리했을 뿐이었다.

셋째,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의이다. 관련 사료를 통해 조선 초의 피로인 송환은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①침구 지역을 이동시킨 것이며, ②중국에서는 ‘왜구’, 조선에서는 ‘해상’과 같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나카무라는 조선에 왜구의 침구가 줄어들자, 조선의 회유 정책, 즉 조선이 일본의 사절을 우대할 정책이 마치 이때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왜구가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 입장인 조선과 중국에서는 왜구의 존재를 항상 경계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정왜(征倭)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평화로운 통교자’라는 인식은 사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늘 왜인은 조선의 근심·걱정거리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나카무라는 왜 조선의 회유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일까? 나카무리는 왜 왜구를 평화로운 통교자로 전환되었다고 규명했을까?

그것은 나카무리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근래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나카무리는 식민사관자로서, 늘 조선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조선 정부는 일본의 막부나 왜인들을 우대하여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으며, 일본의 막부 및 왜인들 역시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선과 무역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와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대(對)고려 교섭을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이다. 요컨대 나카무리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피로인 송환이 왜구를 해상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구 침구 발생 → 조선정부의 회유책(피로인 송환을 통한 무역 등의 경제적 행위) → 왜구 침구 감소

‘조선 정부가 회유책을 썼더니 왜구 침구가 줄었다’는 것은 곧 왜인(왜구)들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선과 통교하게 해주었더니 왜구 침구가 줄었다는 말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나카무라의 왜구 발생의 원인에 대한 견해과 다르지 않다. 나카무라는 왜구 발생의 원인을 단순히 대마도·이키 등 일본의 변경에 위치한 섬들의 식량부족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내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왜구의 발생 원인을 축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로 일본의 국가권력은 남조정통론(南朝正統論)에 입각해 왔는데, 나카무라는 철저한 남조정통론자였다고 한다.⁸⁶⁾ 따라서 왜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때 남북조의 내란과 철저히 단절한 채, 단순히 대마도·이키 등 변경 지역의 해민(海民)의 기근으로 인한 식량 약탈 정도로만 축소해 온 것이다. 즉, 남조정통론자인 그의 입장에서는 남조의 무사가 조선·중국을 침구한 왜구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⁸⁷⁾ 따라서 그는 왜구의 발생 원인이 일본 국내외의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있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사료상에 있는 수많은 왜구 침구 기사, 왜구 인식에 관한 기사 등을 보았어도 ‘왜구는 평화로운 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는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해구에서 해상(=평화로운 통호자)으로의 전환>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고는 세 가지 한계

86) 이 영, 앞의 주(7) 글,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87) 나카무라가 왜 고려 말 왜구의 실체를 남조의 무사라고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 위의 글 참조.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해구에서 해상으로 전환> 설을 최초로 주장한 나카무라의 연구만을 고찰하였을 뿐, 타 연구자들의 주장, 특히 나카무라의 설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나카 다케오의 연구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기회에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피로인 송환이 이루어지는 세종대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 태조~태종대 피로인 송환이 갖는 의미가 왜구의 침구 지역을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 왜구의 활동 양상을 바꾸게 한 것이라면, 세종대의 피로인 송환은 과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왜구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삼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 논하지 못한 점이다. 본고에서 정왜론에 대한 언급만 하였을 뿐, 당시 왜구의 중국 침구로 인한 한중일 삼국의 정치·외교적인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여진 문제나 중국의 북정(北征)과 관련한 조선의 인식·정책 등⁸⁸⁾을 염두에 두면서 왜구 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관련한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88) 고려 말에 이어 조선조에서도 국방에 관한 주된 관심사는 북쪽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특히 여진 문제와 관련하여 명과 갈등을 초래하였다(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 146, 2018). 또한 명의 북정(北征) 소식에 대해 조선 정부는 여러 차례 국방에 대해 염려했고, 이와 더불어 왜구의 중국 침구로 인한 정왜론까지 대두되면서 조선의 대명관계는 불안정해져 갔다. 한편, 일본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사후, 그의 아들인 요시모치(義持)가 명과 외교관계를 단절시키며 명일(明日) 관계는 악화해 갔다(鄭樑生, 위의 책; 佐久間重男,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2). 따라서 당시 조선이 처한 북방 문제 및 왜구 문제를 둘러싼 조명(朝明)·조일(朝日)·명일(明日)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15세기의 왜구는 절대 '평화적 통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222 | 軍史 第118號(2021. 3.)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8,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나카무라 히데다카, 왜구, 해상, 피로인 송환, 평화적 통교자,
이마가와 료순, 오우치 요시히로, 다나카 다케오,
아키야마 겐조

<참고문헌>

1. 사 료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2. 논 문

구분학, 「싱가포르 마북 정상회담 의미와 한국의 안보」, 『신아세아』 25-2, 2018.

<https://doi.org/10.22869/nari.2018.25.2.003>

김경록, 「조선초기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군사연구』 146, 2018.

김연옥, 「일본역사학계의 해양사 최신연구현황과 과제-14세기 후반~19세기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8, 2017.

<https://doi.org/10.31329/jmhs.2017..48.007>

나카다 미노루(中田稔),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윤동영·강건택, 「북한, 한국전 미군 유해 250여구 송환」, 『마이더스(Midas)』 2018-7, 2018.

이 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https://doi.org/10.17949/jneac.1.31.201206.010>

_____, 「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http://uci.or.kr/G704-001262.2012..34.001>

_____, 「조선사 편수관(朝鮮史編修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패러다임과 일본의 왜구 연구」, 『일본학연구소』 제28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2014.

<http://uci.or.kr/G704-SER000001285.2014.38..013>

이 영, 「일본의 왜구 연구와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인식」, 『동양사학 연구』 127집, 2014.

<https://doi.org/10.17856/jahs.2014.06.127.49>

_____,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2014.

<http://uci.or.kr/G704-001262.2014..40.009>

_____, 「일본의 조선사 연구의 권위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서술의 논리적 전개와 문제점 - 『일본과 조선(日本と朝鮮)』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6집, 2015.

<https://doi.org/10.17999/SOHE.2015.55.07>

_____,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사』 및 『신편 한국사』의 고려 말 왜구 서술에 관한 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2017.

<http://uci.or.kr/G704-SER000009034.2017.23..010>

손홍렬,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사충』 19, 1975.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 화교섭학』 21, 2019.

<https://doi.org/10.35158/cisspc.2019.10.21.117>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6, 2016.

<https://doi.org/10.19120/cy.2016.10.39.109>

하우봉, 「4.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_____, 「제4장 15~16세기 조선의 대일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한윤희,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 '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日本研究』 36,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http://uci.or.kr/G704-001998.2014..36.012>

_____, 「여말-선초 피로인(被虜人) 송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秋山謙藏, 『室町初期に於ける九州探題の朝鮮との通交』, 『史学雑誌』 제42권 제4호, 1931.
- _____, 『倭寇』による朝鮮·支那人奴隸の掠奪とその送還及び賣買』, 『社会経済史学』 2권 8호, 1932.
- 川添昭二, 「今川了俊の對外交渉」, 『九州史學』 75, 1982.
-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日本の社会史』 第1卷, 岩波書店, 1987.
- 中村栄孝, 『室町時代の日鮮關係』,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3. 저 서

-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 이 영,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 _____,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
-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 岩波書店. 1939.
- 有井智徳, 『高麗李朝史の研究』, 国書刊行会, 1985.
- 佐久間重男,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2.
- 関 周一,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_____, 『対馬と倭寇』, 高志書院, 2012.
-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學出版會, 2011.
-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6.
-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 _____,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2.
- _____,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1982.
- _____, 『對外關係史研究のあゆみ』, 吉川弘文館, 2003.
- 中村栄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上·中·下, 吉川弘文館, 1965~1969.
- _____,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 松岡久人, 『大内義弘』, 人物往來社, 1966.
-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 鄭樑生, 『明·日關係史研究』, 雄山閣, 1994.
-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会 編, 『對外關係史總合年表』, 吉川弘文館,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Repatriation of ‘PIROIN’ meaning Captives in Early Chosun dynasty

- Focusing on Nakamura Hidedaka’s Theory of Guardian of Peace,
‘Transition from Pirates(Waegu) to Merchants’ -

Han, Yoon-hee

Hidedaka Nakamura, a pioneer in the pre-modern Korean-Japanese relations history, believes that "the number of Japanese people coming and going with Chosun gradually increased through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and eventually the position of pirates(waegu) turned into the status of merchants." This means that pirates(waegu) and merchants are different. However, it was recently revealed that Nakamura was an imperial oriented historian.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is argument also needed to be reviewed, whether or not it was affected by such ideological influence.

In this paper, this paper is named as the theory of Hidedaka Nakamura's "transition from pirates(waegu) to merchants", and examined the range of the period between King Taejo and King Taejong in terms of paper. And in this paper, we have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 did the invasion of weagu decrease as the number of Japanese people coming and going to Chosun increased? Second, were weagu and merchant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r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n early Chosun?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invasion of weagu also increased sharply at the time when Japanese people coming to Chosun increased rapidly. Since then, the pirates were intermittent, but continued to invade Chosun. In addition,

in China at the same time as the Chosun Taejo–Taejong year, pirates were invading on a large scale almost every year. In other words, the pirates who invaded Chosun moved to China. From the historical records, it can be seen that pirates invading China are no different from beings invading Joseon. When they encountered a situation in which they were defended, they acted as merchants, and in the opposite situation, they returned to the position of pirates. In other words, they always had two aspects of a pirate and a merchant, just like the front and back sides of a coin, only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situ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n the early Chosun period did not convert pirates into merchants, but ①moved the invading area, ②changed their existence according to the region and situation, such as 'pirates' in China and 'merchant' in Chosun.

Keywords : Nakamura Hidedaka, Waegu, Merchant,
the Repatriation of Captives(Piroin), Imagawa Ryousyun,
Oouchi Yoshihiro, Tanaka Takeo, Akiyama Kenzou

